

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근거한 가족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The life satisfaction and sociodemographic backgrounds of family types clustered based on the intra system dynamics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이연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Lee Yon Suk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classify the family types based on the intra system dynamics and to examine sociodemographic background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se families. The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a stratified sample of 544 housewives in Seoul who lived with husbands and children.

The questionnaire included FACES II and III, Communication Scale, managerial behavior scale, and life satisfaction Scale. Frequency percentile, mean, correlation,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with scheffe test, and chi-square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is study had resulted in four major findings.

The first was that highly positive relationships were found among four intra system dynamics elements.

The second finding was that families were clustered by four types, named personal-oriented, enervated, dynamic, and managerial-oriented family.

The third finding was that the four types of family were influenced by education level and job of husbands, and family income.

* 본 연구는 1995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부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The last one was that the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were found among four types of family. The housewives of dynamic family type showed the highest level of satisfaction, whereas the lowest level of life satisfaction was found among housewives of enervated family type.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better ways to educate and counsel families were suggested.

I 서론

1. 문제의 제기

체제론에 따르면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서 그 자체의 행동체계가 있는 독특한 실체라고 한다. 특정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행동체계를 통하여 유형을 형성하고 이러한 유형화가 가족체계의 본질이 된다고 하였다. 가족을 유형화시키는 가족체계의 행동특성을 Deacon과 Firebaugh(1988)는 가족체계내 역동성(intra system dynamics)이라고 하면서 체계내 역동성의 요소로써 Olson(1983)의 순환모델에서 사용된 세 차원인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에 가족자원관리행동인 기능성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가족구성원들은 개인상호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의사소통을 통하여 응집성, 적응성, 기능성의 차원이 발달되고 통합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가족은 전체가 각 부분의 단순 합보다 커지는 독특한 체계로서의 실체가 된다고 하여 체계내 역동성요소가 가족체계를 유형화시키는 본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체계적인 독특성을 나타내는 가족체계내 역동성에 따라 산출변수는 어떤 양상을 나타내고 어떤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가진 가족이 어떤 행동특성이 있느냐를 많은 연구에서 분석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 중 어떤 한두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이 요소와 배경변수 및 산출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족체계의 일부 행동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이러한 행동특성이 통합적으로 나타난 가족체계의 독특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

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동성 개념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가족체계의 독특한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인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 기능성 및 의사소통에 따라 가족이 어떤 특성을 갖는 가족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의 행동체계를 통하여 나타난 결과적 요소인 생활만족도는 가족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유형화된 가족은 어떤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를 갖고 있느냐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체계내 역동성 요소인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및 가정관리행동을 기본차원으로 하여 군집 화할 때 가족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2. 연구문제 1)에서 분류된 가족유형은 어떤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를 갖고 있는가?
3. 연구문제 1)에서 분류된 가족유형에 따라 생활만족도는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체계내 역동성(intrasystem dynamics)의 개념과 요소

Deacon과 Firebaugh(1988)은 가족체계는 인적하위 체계와 관리하위체계로 구성되고 이 두 하위체계는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여 체계적인 역동성을 발전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내 역동성의 특성 때문에 가족체계는 전체로서 그 자체의 발달 특성을 갖는 독특한 실체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체계내 역동성의 요소로써 Olson등(1983)의 순환모델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의 3요소 이외에 가정관리행동인 기능성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응집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관계; 적응성은 가족체계가 상황적·발달적 요구에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역할규칙을 변화시키는 가족조직의 능력; 기능성은 요구를 예상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가족원의 능력; 의사소통은 타인의 마음에 의미를 생성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서 응집성, 적응성, 기능성을 촉진시키는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Deacon과 Firebaugh는 체계내 역동성 요소 중 기능성을 가정관리행동과 동일한 행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가정관리행동을 기능성요소로 보고자 하며,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효율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2. 가족체계의 역동성 요소와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적용한 4가지의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의하여 가족을 유형화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에 따라 개별체계내 역동성요소의 양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선행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응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성별(김명자, 1992; 최규련, 1994)로 나타났는데 부인이 남편보다 높은 응집력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고정자와 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자녀수와 사회경제적지위가 응집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수연과 김득성(1994)연구에서는 막내자녀연령이 낮을수록 남편은 높은 응집성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김순옥(1990)은 고등학교 자녀와 부모간의 응집성은 형제자매유무, 출생순위, 부부간의 연령차이와 같은 가족구조변인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부인의 연령(고정자·김갑숙, 1996)과 교육수준(김수연·김득성, 1994)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집성과 적응성에 따라 가족체계를 유형화한 경우 이러한 가족체계유형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다. 응집성·적응성 수준이 높은 가족은 결혼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간 종교가 일치할 경우, 부부가 전문·관리직일 때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최규련(1994)연구에서는 밝히고 있다. 안선영(1994)연구에서는 핵가족이고, 종교가 있는 가족이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이 높은 가족이 많다고 하였다.

의사소통의 효율성 및 양식, 빈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많은 연구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선 응답자의 연령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 연구에서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보인다(김순옥, 1989, 1990; 이정우·이정숙, 1992; 오경희, 1995; 임정빈 외 2인 1995). 교육수준도 의사소통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신례, 1987; 서수경, 1988; 김순옥, 1989; 서수경·이정덕, 1991; 이정우·이정숙, 1992; 오경희, 1995). 가족의 소득수준도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 효율성과 정적인 관계로 여러 선행연구(홍신례, 1987; 김순옥, 1990; 조은경·서병숙, 1994)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녀수(홍신례, 1987; 이정우·이정숙, 1992; 오경희, 1995)의 경우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적어진다고 나타나고 있다. 결혼지속연수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를 보이거나(서수경, 1988; 서수경·이정덕, 1991), 결혼지속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많아지거나(김순옥, 1989), 가족의 의사소통효율성이 높아진다는(이정우·이정숙, 1992) 연구들이 있다. 기타 남편(아버지)의 직업유형(김순옥, 1989; 조은경·서병숙, 1994)이나 가족생활주기(김순옥, 1989)에 따라 의사

소통양식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효율적 의사소통(이정우·이정숙, 1992)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리행동도 여러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주부의 연령이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주부의 연령의 경우는 연령이 적을수록 가정관리행동이 효율적으로 나타난 연구(이영미·이길표, 1984 ; 박미금, 1985)와 연령이 많을수록 가정관리행동이 효율적으로 나타난 연구(Newton, 1979 ; Garrison & Winter, 1986 ; Fitzsimmons, Hafstrom & 임정빈, 1991)가 있어 연령에 따른 가정관리의 효율성은 연구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부분 연구에서 가정관리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이정우, 1981 ; 이영미·이길표, 1984 ; Garrison & Winter, 1986 ; 이연숙·두경자, 1991 ; 이정우·이정숙, 1992 ; 오경희, 1995 ; 임정빈·조미환·이영호, 1995). 가정관리행동은 가계의 소득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었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가정관리행동이 효율적인 관리행동과는 부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Garrison & Winter, 1986 ; Fitzsimmons, Hafstrom & 임정빈, 1991)결과가 있어 연구에 따라 상반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족수에 따라서도 가정관리행동이 차이를 보이는데 Fitzsimmons 외 3인(1991)의 연구에서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효율적 재무관리행동을 한다고 나타났고, 이연숙·두경자(1991)연구에서는 가족수가 많을수록 복잡성이 높고 촉진조건이 낮다고 하여 가족수와 효율적 관리행동과의 부적인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Garrison과 Winter (1986)연구에서도 가족수와 관리행동과는 부적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기타 6세 이하의 자녀수와 가정관리행동의 효율성이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Maloch & Deacon, 1970 ; 이연숙·두경자, 1991)것으로 나타났고, 주부의 취업상태 및 자산(이연숙·두경자, 1991), 결혼지속연수(Maloch & Deacon, 1970) 및 사회경제적지위(이정우·이정숙, 1992)도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3.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들과 생활만족도

본 연구에서 적용한 4가지의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의하여 가족을 유형화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가정관리행동과 생활의 질, 생활 및 결혼만족도, 복지감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응집성 및 적응성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 보겠다. 가족체계내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김득성·김수연, 1993)가, 중년기 남편과 부인의 복지감(김명자, 1992)이, 남편이 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고정자·김갑숙, 1996)이,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박경숙, 1993) 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응집성 및 적응성은 부부간의 갈등을 적게 하거나(최규련, 1994)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을 적게 하거나(김수연·김득성, 1994), 부모자녀간의 문제를 적게(전귀연·최보가, 1993)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응집성과 적응성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일치되고 있다. 이는 응집성과 적응성 두 차원으로 가족을 유형화한 경우도 같은 결과를 보인다.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한 박경숙(1993)의 연구와 도시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연숙(1996)의 연구를 보면 응집력과 적응력이 가장 높은 가족이 생활의 만족도가 가장 크며 응집력과 적응성이 가장 낮은 가족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와 관계도 여러 선행연구에서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빈도가 많거나 의사소통양식이 효율적일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한다고 나타났다(정용재, 1985 ; 홍신례, 1987 ; 김인숙, 1988 ; 김순옥, 1989 ; 김화자, 1990). 임정빈 외 2인(1995)의 농촌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록 가정의 재무관리자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관리행동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가정관리행동을 어떻게 유형화하였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계획행동과 수행행동 중심으로 가정관리행동의 효율성을 측정된 대부분 연구에서 가정관

리행동이 효율적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Newton, 1979 ; Heck, 1983 ; Chung, 1988 ; 이연숙·두경자, 1992 ; 임정빈·조미환·이영호, 1995).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안정지향 혹은 변화지향으로 유형화할 경우 가정관리행동유형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이 안정지향관리행동일수록 생활만족도 및 결혼만족도가 커진다는 연구(Beard, 1975 ; 이정우·오경희, 1988)와 변화지향관리행동을 하는 응답자가 생활만족도가 크다는 연구(최동숙, 1991 ; 홍은실, 1996)가 있어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가정관리행동과 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체계내 역동성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생활만족도, 복지감, 결혼만족도 등

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연구에서 체계내 역동성 요소의 수준이나 효율성과 여러 만족도 및 복지감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이다. 가족 체계내 역동성 요소 중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요소를 측정하는 척도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미취학인 형성기 가족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초등학교 이상 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며,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주부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실시에 앞서 해당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면접 및 집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변수	구분	빈도(%)
주부연령	35세 이하	65(13.9)	가계총소득	150만원 이하	82(19.8)
	35-42	183(39.0)		150-250만원	146(35.3)
	43-49	175(37.3)		251-350만원	106(25.6)
	49세 이상	46(9.8)		350만원 이상	80(19.3)
주부학력	중졸 이하	76(16.2)	생활주기 (만자녀 중심)	초등교육기	103(21.7)
	고졸 및 대졸퇴	247(52.8)		중등교육기	189(39.9)
	대졸 이상	145(30.9)		대학교육기	112(23.6)
남편학력	중졸 이하	38(8.1)		대학교육기 이후	70(14.8)
	고졸 및 대졸퇴	203(43.1)	주거형태	단독주택	163(34.5)
대졸 이상	230(48.8)	아파트		164(34.7)	
가족형태	핵가족	399(84.2)		다세대	110(23.3)
	확대가족	73(15.2)	빌라 및 기타	36(7.6)	
가족수	3명	42(8.9)	주부의 직업	전문·관리·사무직	54(12.2)
	4명	227(47.9)		판매·서비스직	145(32.7)
	5명	131(27.6)		무직	245(55.2)
	6명 이상	74(15.6)	남편의 직업	전문·관리·사무직	254(53.6)
자녀수	1명	30(6.3)		판매·서비스직	188(41.5)
	2명	279(58.9)		무직	11(2.3)
	3명	117(24.7)		거주지역	강북
4명 이상	48(10.2)	강남	199(43.9)		

단 검사를 통한 예비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본 조사를 위한 척도를 작성하였다.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의 어머니 544명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510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4%), 부실기재된 36부를 제외하고 총 474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초, 중, 고등학교인 경우는 교사를 통하여, 대학교의 경우는 담당교수 및 연구자가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일부자료는 조사원이 개인 면담을 하여 수집하였다. 예비조사는 1995년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본 조사는 1995년 10월 25일 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로 응집성 및 적응성, 의사소통, 관리행동,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집성 척도는 Olson 등(1983)의 FACES-II 척도, 민하영(1991)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16문항을, 적응성 척도는 Olson 등(1983)의 FACES-III 척도, 김수연(1993), 김명자(1992)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두 척도의 문항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 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척도는 Olson 등(1983)의 FACES-II, 김수연(1993), 이정우·이정숙(1992), 김순옥(1990), 김화자(1990)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24개 문항을 작성하였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가정관리행동척도는 Heck 등(199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관리하위체계의 투입, 과정, 산출요소에 기초하여 총 13문항이 작성되었고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척도는 Chung(1988), 최동숙(1991) 등의 연구를 기초로 총 18문항이 작성되었는데 문항은 5

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상 척도들의 Cronbach α 신뢰도 계수는 응집성 .86, 적응성 .67, 의사소통 .89, 가정관리행동 .90, 생활만족도 .92로 나타났고 내용타당도는 관련전공교수 5인으로부터 검증받았다.

3. 자료분석

기초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가 적용되었고,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교차분석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pc+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가정관리행동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가족체계내 역동성 4요소의 평균과 이들간의 상관관계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응집성은 56.97, 적응성은 17.55, 의사소통은 87.06, 가정관리행동은 45.48, 생활만족도는 60.82의 평균값을 보인다.

이들 요소들의 일반적 경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5점척도로 환산된 평균을 산출한 결과 모든 요소들의 값이 중간값인 3점을 넘고 있었다. 그중 응집성의 값이 3.8로 가장 높고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은 각각 3.79, 적응성은 3.51, 생활만족도는 3.38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가족의 경우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보통 이상이며 의사소통이나 가정관리행동도 비교적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체계가 상황적·발달적 요구에 권력구조나 역할관계를 변화시키는 적응성 점수가 나머지 3개의 역동성 요소 보다는 다소 값이 낮으나 3.51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응집성이 적응성보다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Olson, 1983; 박경숙, 1993; 김수연·김득성, 1994; 고정자·김갑숙, 1996; 안선영, 1994)와 일치하고 있다.

〈표 2〉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가정관리행동의 상관관계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가정관리행동	생활만족도
적응성	.74***				
의사소통	.66***	.60***			
가정관리행동	.48***	.47***	.46***		
생활만족도	.53***	.45***	.51***	.28***	1.00
평균	56.97	17.55	87.06	45.48	60.82
5점 척도 환산평균	3.80	3.51	3.79	3.79	3.38
표준편차	8.70	3.36	10.95	7.61	10.75

*** p < .001

생활만족도는 모든 체계의 역동성 4요소들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들간의 상관관계는 아주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응집성은 적응성(.74)이나 의사소통(.66)과 아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적응성도 의사소통(.60)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응집성과 의사소통과의 높은 상관관계는 김수연(1993)과 김득성·김수연(1993)의 선행연구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가정관리행동과 이들 3요소들간의 관계는 .46~.48로 다소 낮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Olson 등(1983)의 순환모델에 포함되었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요소가 주로 가족체계내의 인적하위체계 요소들의 특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고 가정관리행동은 가족체계내의 관리하위체계 특성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적하위체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요소들간의 관계가 관리하위체계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가정관리행동과의 관계보다는 좀더 밀접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 요소들이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밀접할 수록 상황적 요구에 가족원의 역할관계를 변화시키는 적응력도 높고, 의사소통이나 가정관리행동도 효율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4요소는 모두 가족체계를 활

성화시켜서 건강한 가족체계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특성은 이들 요소와 생활만족도와 의 관계를 보면 보다 잘 나타나고 있다. 체계내 역동성 4요소는 모두 생활만족도와 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응집성, 적응성이 높고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이 효율적 일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4요소 중 응집성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53)를 보이고 있으며, 의사소통(.51)과 적응성(.45)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정관리행동은 앞의 3요소보다 생활만족도와 의 상관관계가 다소 낮게(.28)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가족체계내의 관리하위체계 특성보다는 인적요소들의 특성과의 관계가 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체계내 역동성의 4요소는 모두 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높은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2.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기초한 가족유형 분석

가족체계내 역동성요소에 따라 가족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가정관리행동을 특성변수로한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 앞서 4개의 척도에 대하여 각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였는데 응집성 1개문항, 적응성의 1개문항이 전체문항과의 상관관계가 0.3이하로 나타

나서 이 2개 문항은 제외시켰다. 군집분석을 한 결과 4가지 가족 유형이 추출되었다. 4가지 가족유형의 군집간 빈도수와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및 가정관리행동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표 3>에 나타나 있다. Scheffe 검증결과 가족유형 군집에 따라서 4개 체계내 역동성 요소들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족유형인 각 군집의 명칭과 주요특성은 <표 4>에 나타나 있다.

이 평균보다 낮고 가정관리행동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라 관리지향 가족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하위체계를 강조하는 관리지향 가족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인적하위체계를 강조하는 인간관계지향 가족유형, 역동적 가족유형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모든 체계내 역동성 요소가 가장 낮은 비역동적인 가족유형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족유형

<표 3> 가족유형 군집별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가정관리행동의 평균과 차이검증

	전체평균	군집1 N=114		군집2 N=40		군집3 N=67		군집4 N=191		F값
		평균	sch	평균	sch	평균	sch	평균	sch	
응집성	56.97	60.42	B	43.25	D	66.91	A	54.30	C	157.74***
적응성	17.55	18.77	B	13.35	D	21.13	A	16.48	C	98.50***
의사소통	87.06	91.79	B	67.68	D	102.25	A	82.96	C	329.31***
관리행동	45.48	41.66	C	36.48	D	53.73	A	46.58	B	91.98***

<표 4> 가족유형 명칭과 주요특성

군 집	가족유형명칭	주 요 특 성
군집1	인간관계지향가족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이 평균보다 높고 관리행동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
군집2	비역동적가족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관리행동이 가장 낮은 집단
군집3	역동적가족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관리행동이 가장 높은 집단
군집4	관리지향가족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이 평균보다 낮고 관리행동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

군집1에 속한 가족은 114가족으로 나타났는데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이 평균보다 높고 가정관리행동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이라 인간관계지향 가족으로 명명하였다. 가장 적은 빈도인 40 가족이 속한 군집2는 4개의 체계내 역동성요소가 가장 낮게 나타난 집단인데 이를 비역동적 가족이라고 칭하였다. 67가족이 속한 군집3은 4개의 체계내 역동성요소가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이라 역동적가족으로, 가장 많은 191가족이 속한 군집4는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과 가족유형에 따른 빈도분포가 본 연구 조사대상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가족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계속 검증해보아야 한다고 사료된다.

3. 가족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군집화된 가족유형은 어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가족유형별 인구사회학적특성

변 수	구 분 N(%) ¹⁾	인간관계지향가족 N=113(C%)(R%)	비역동적가족 N=40(C%)(R%)	역동적가족 N=66(C%)(R%)	관리지향적가족 N=189(C%)(R%)	χ^2
주부연령	35세이하	19(16.8)	6(15.0)	6(9.1)	25(13.2)	10.22
	35-42	41(36.3)	15(37.5)	34(51.5)	63(33.3)	
	43-49	41(36.3)	13(32.5)	22(33.3)	81(42.9)	
	49세 이상	12(10.6)	6(15.0)	4(6.1)	20(10.6)	
주부학력	중졸이하	14(13.1)	4(10.8)	6(9.8)	29(16.4)	9.26
	고졸 및 대중퇴	51(47.7)	24(64.9)	28(45.9)	97(54.8)	
	대졸이상	42(39.3)	9(24.3)	27(44.3)	51(28.8)	
남편학력	중졸이하	3(2.8)(10.7)	7(18.9)(25.0)	2(3.3)(7.1)	16(8.9)(57.1)	16.91**
	고졸 및 대중퇴	38(35.5)(24.1)	16(43.2)(10.1)	27(44.3)(17.1)	77(43.0)(48.7)	
	대졸이상	66(61.7)(33.3)	14(37.8)(7.1)	32(52.5)(16.2)	86(48.0)(43.4)	
가족형태	핵가족	99(86.8)	36(90.0)	55(83.3)	160(84.2)	1.31
	확대가족	15(13.2)	4(10.0)	11(16.7)	30(15.8)	
가족수	3명	11(9.6)	2(5.0)	8(11.9)	18(9.4)	4.16
	4명	56(49.1)	18(45.0)	34(50.7)	93(48.7)	
	5명	35(30.7)	14(35.0)	16(23.9)	51(26.7)	
	6명이상	12(10.5)	6(15.0)	9(13.4)	29(15.2)	
생활주기	초등교육기	27(23.7)	6(15.0)	16(23.9)	42(22.0)	10.22
	중등교육기	48(42.1)	17(42.5)	30(44.8)	64(33.5)	
	대학교육기	25(21.9)	8(20.0)	15(22.4)	49(25.7)	
	대학교육기이후	10(8.8)	5(12.5)	4(6.0)	22(11.5)	
가계총소득	150만원이하	15(14.6)(20.8)	13(39.4)(18.1)	12(20.0)(16.7)	32(18.9)(44.4)	20.23*
	150-250만원	38(36.9)(29.7)	12(36.4)(9.4)	21(35.0)(16.4)	57(33.7)(44.5)	
	251-350만원	31(30.1)(33.0)	1(3.0)(1.1)	11(18.3)(11.7)	51(30.2)(54.3)	
	350만원이상	19(18.4)(26.8)	7(21.2)(9.9)	16(26.7)(22.5)	29(17.2)(40.8)	
주거형태	단독주택	35(30.7)	14(35.0)	27(40.3)	66(34.6)	3.63
	아파트	44(38.6)	15(37.5)	18(26.9)	67(35.1)	
	다세대	28(24.6)	8(20.0)	17(25.4)	43(22.5)	
	빌라 및 기타	7(6.1)	3(7.5)	3(7.5)	4(7.9)	
주부직업유형	전문·관리	18(16.7)(36.7)	1(2.6)(2.0)	13(21.0)(26.5)	17(9.4)(34.7)	11.28 (p=.08)
	사무직	30(27.8)(24.6)	13(33.3)(10.7)	18(29.0)(14.8)	61(33.7)(50.0)	
	판매·서비스직 무직	60(55.6)(27.4)	25(64.1)(11.4)	31(50.0)(14.2)	103(56.9)(47.0)	
남편직업유형	전문·관리	75(67.6)(32.6)	17(43.6)(7.4)	39(62.9)(17.0)	99(54.1)(43.0)	9.82*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32(28.8)(20.6)	20(51.3)(12.9)	22(35.5)(14.2)	81(44.3)(52.3)	
거주지역	강북	41(38.7)	20(54.1)	28(45.9)	83(47.2)	3.27
	강남	65(61.3)	17(45.9)	33(54.1)	93(52.8)	

* p < .05 ** p < .01

1)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Column(C%)와 Row(R%)를 모두 제시하였음

(〈표 5〉 참고). 교차 분석한 결과 가족유형은 남편의 학력, 가계총소득, 남편의 직업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우선 남편의 학력을 보면 인간관계지향 가족유형은 남편의 학력이 대졸 및 그 이상일 경우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고, 비역동적 가족유형은 남편의 학력이 낮은 중졸 이하의 가족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높다. 관리지향가족의 경우는 남편의 학력이 고졸 및 대졸퇴직단과 대졸 및 그 이상 집단에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역동적 가족의 경우는 대졸 및 그 이상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관리지향 가족의 빈도가 높기 때문에 남편의 학력수준과 관계없이 어떤 집단에서도 관리지향가족의 비율이 높으나 남편학력이 높을수록 인간관계지향 가족유형이 나타나고 있고 학력이 낮을수록 비역동적 가족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응집성, 적응성 수준이 높은 가족 유형이 나타난 최규련(1994)과 안선영(1994)과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가계의 총소득에 따라 가족유형도 유의미하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관리지향 가족과 인간관계지향 가족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두 유형의 가족이 모든 소득집단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나 소득이 251~350만원의 소득집단에서 관리지향 가족유형과 인간관계지향 가족유형이 나타나는 비율이 타 소득 집단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150만원 이하인 집단의 경우 인간관계지향, 비역동적유형, 역동적유형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나, 다른 소득집단에 비하여 비역동적 가족유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이 최상 집단의 경우는 타 집단에 비하여 역동적 가족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인간관계지향 유형도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모든 소득집단에서 전체적으로 빈도가 높은 관리지향 유형과 인간관계지향 가족이 가장 많으나 소득이 최하위인 집단의 경우는 비역동적가족유형이, 소득이 최상집단의 경우는 역동적 가족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나타난 선행연구(홍신례, 1987 ; 김순옥, 1989 ; 조은경·서병숙, 1994)나 가정관리행동이 효율적으로 나타난 선행연구(이연숙·두경자, 1991)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남편의 직업유형에 따라 가족유형도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간관계지향 가족과 역동적 가족유형은 남편의 직업유형이 전문·관리·사무직일 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직업이 판매·서비스직일 경우는 관리지향 가족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비역동적 가족유형의 비율도 전문·관리·사무직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일 때 응집성과 적응성 수준이 높은 가족유형을 나타낸 최규련(1994)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가족유형은 남편의 학력, 직업유형 및 가계소득(주부가 직업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편에 의하여 결정) 등 남편에 귀속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하여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개념 등이 가족간의 인간관계 측면을 주로 측정한 것에 기인하리라 사료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개념에 의해 군집화된 가족유형은 주부 개인의 행동보다는 남편과 기타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는 남편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가족유형을 결정하는데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4.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군집화된 가족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생활 만족도는 가족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표 6〉 참고). 가장 높은 생활만족도를 나타낸 집단은 체계내 역동성 요소의 점수가 가장 높은 역동적 가족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생활 만족도를 나타낸 집단은 4개의

역동성 요소 점수가 가장 낮은 비역동적가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간관계지향가족은 역동적가족보다 생활만족도가 낮으나 관리지향가족보다는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Scheffe 검증 결과 4가족유형 간에는 생활만족도가 모두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표 6〉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

가족유형	N*	평균	sch.	F값
인간관계지향가족	113	63.29	A	42.78***
비역동적가족	38	52.42	B	
역동적가족	64	70.56	C	
관리지향가족	184	57.66	D	
전체	399	60.82		

+ 결측값으로 인한 빈도의 차이 *** p=.001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응집성, 적응성이 높고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을 효율적으로 할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응집성과 적응성 두 요소와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박경숙, 1993 ; 김명자, 1992 ; 김득성·김수연, 1993 ; 고정자·김갑숙, 1996 ; 이연숙, 1996)들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과 생활 만족도와의 관계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결혼 만족도와 관계를 분석한 정용재(1985), 홍신례(1987), 김인숙(1988), 김순옥(1989) 및 김화자(1990)의 연구나 가정관리행동의 효율성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Newton(1979), Heck(1983), Chung(1988), 이연숙·두명자(1992), 임정빈 외 2인(1995)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체계내 역동성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이들과 생활만족도와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제한점은 있으나 본 연구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 4체계내 역동성 요소 특성이 모두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지만 인적요소의 특성인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가족이 관리하위체계의 특성인 가정관리행

동을 강조하는 가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이끌기 위해서는 가족원간의 정서적유대감과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적응능력을 높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원을 관리하는 가정관리행동은 이러한 세 요소가 잘 개발될 수 있는 상황을 제공(Deacon & Firebaugh, 1988)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가정생활교육이나 상담은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큰 가족일수록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보았을 때, 역동적가족이나 인간관계 지향가족이 다른 유형보다 기능적인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형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요약해보면 남편의 학력이 높고, 직업이 전문·관리·사무직이며 가계 총소득이 중간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남편의 인적자원인 교육이나 직업지위가 역동적이고 기능적인 가족유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가정생활교육에 남편의 인적자원의 질 향상을 위해서 남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인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및 가정관리행동의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을 유형화시켜 보고 이 유형화된 가족의 생활만족도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47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들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등 인적하위체계 요소들간의 상관관계가 가정관리행동과의 상관관계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인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가정관리행동 척도를 기준으로 가족유형을 군집분석한 결과 4가지 유형의 가족으로 군집화

되었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의 가족을 인간관계지향 가족, 비역동적 가족, 역동적 가족, 관리지향 가족으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하위체계를 강조하는 관리지향 가족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인간관계지향 가족유형, 역동적 가족유형, 비역동적 가족유형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었다.

셋째,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따른 가족유형은 남편의 학력, 직업 유형 및 가계의 총소득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남편의 학력이 높고, 직업유형이 전문·관리·사무직이고 월평균 가계총소득이 150만원 이상인 가족의 경우는 인간관계지향 유형이나 역동적 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편의 학력이 낮고, 직업유형이 판매·서비스직이고 월평균 가계총소득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비역동적 가족유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군집화된 가족유형에 따라 주부의 생활만족도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생활에 만족하는 가족 유형은 체계내 역동성 모든 요소들의 값이 가장 높은 역동적 가족유형이고 이어서 인간관계지향 가족, 관리지향 가족의 순서로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가족유형은 체계내역동성의 모든 요소들의 값이 가장 낮은 비역동적 가족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후속연구나 효율적인 가정생활 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군집화된 가족 유형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른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군집화된 가족유형별로 빈도수가 고르지 못한 것이 척도나 자료수집 절차의 문제인지 아니면 도시가족에서 관리지향 가족이나 인간관계지향 가족유형이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향인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둘째,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보다는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의해서 가족 유형이 결정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내에서의 남편의 역할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는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외에 가치의식, 성 역할 태도 등과 같은 심리학적 특성이 가족유형과 가족의 순기능인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남편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지위같은 인적자원이 역동적이고 기능적인 가족유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가정생활교육이나 상담에 남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가족체계 인적요소의 특성인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가족이 관리하위체계의 특성인 가정관리 행동을 강조하는 가족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정생활교육이나 상담에서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적응력 및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강조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실은 이러한 체계내 인적요소의 특성은 자원을 관리하는 가정관리행동에 의해서 강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체계내 역동성 요소들의 특성과 이 요소들이 가족의 순기능에 작용하는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통합적인, 다학문적인 접근을 통하여 연구·상담 및 교육이 시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고정자·김갑숙(1996), 가족의 응집성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2)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31-55.
- 3) 김득성·김수연(1993), 가족의 응집 및 적응척도의 선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19, 1-9.
- 4) 김수연(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5) 김수연·김득성(1994),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3), 121-134.
- 6) 김순옥(1990),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 개방성과 그 귀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7) 김순옥(1989), 한국의 의사소통 연구에 관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71-83.
 - 8) 김인숙(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 제차원에 따른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9) 김화자(1990),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 국민학교 · 중 · 고등, 대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10)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중년기 여성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 11) 박미금(1985), 도시 저임금 취업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과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12) 서수경(1988),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사회인구학적 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13) 서수경 · 이정덕(1991), 부부간 의사소통유형과 자존감 및 인구사회 학적 변인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9(2), 199-215.
 - 14) 안선영(1994),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과 권위 유형, 성역할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2(2), 79-91.
 - 15) 오경희(1995), 가정관리유형, 의사소통 및 가사협조도 : 청주시 가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6-34.
 - 16) 이영미 · 이길표(1984), 행위와 대상에 나타난 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1).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 61-73.
 - 17) 이연숙 · 두경자(1991), 가정관리체계의 요구와 자원요소가 관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주부의 가사노동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성심여자대학(현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논집, 11(1), 105-132.
 - 18) 이연숙(1996),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4(4), 295-308.
 - 19) 이연숙 · 두경자(1992), 가정관리행동이 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43-51.
 - 20) 이정우 · 오경희(1988), 가정관리행동 유형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1), 131-148.
 - 21) 이정우 · 이정숙(1992),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 : 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3), 241-256.
 - 22) 임정빈 · 조미환 · 이영호(1995), 농촌 가정의 의사소통, 재무관리행동, 가정생활 만족 :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적 접근법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23) 전귀연 · 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16-157.
 - 24) 조은경 · 서병숙(1994), 부모 · 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 · 심리적 거리 ·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04-116.
 - 25) 정용재(1985),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26)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27) 최동숙(1991),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28) 홍은실(1996), 도시주부의 가치와 계획행동유형 및 가정생활 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29) 홍신례(1987), 부부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30) Beard, D.M.(1975),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Development of a

- measurement instru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31) Chung, Y.S.(1988), Time management strategy, job satisfaction, research produ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faculty.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 32) Deacon, R.E., & Firebaugh, F.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 (2nd ed.). Boston : Allyn & Bacon.
- 33) Fitzsimmons, V.S., Hafstrom, J.L., & 임정빈. (1991), 한국과 미국의 농촌 가계의 재정관리행동 : Deacon & Firebaugh 모델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81-89.
- 34) Garrison, M.E. & Winter, M.(1986), The managerial behavior of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247-260.
- 35) Heck, R.K.I., Winter, M., & Stafford, K.(1992), Managing work and family in home-base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 13 (2), 187-212.
- 36) Maloch, M.F. & Deacon, R.E.(1970), Components of home management in relation to selected variables, Research Bulletin 1042. Ohio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Wooster, Ohio.
- 37) Newton, D.L.(1979), Managerial behavior,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manager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 38)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Howard, L., Larsen, A.S., Andrea, S., Muxen, M.J., & Wilson, M. A.(1983),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